

#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변천에 따른 사회문화적 의미

노 영 재\*

---

I. 서론	V. 「호두까기 인형」의 소비와 변천
II. 담론으로서의 고전 발레	VI. 결론
III. 「호두까기 인형」의 제작과 발전	참고문헌
IV. 「호두까기 인형」의 기본적 상징 코드	Abstract

---

## I. 서론

21세기 공연예술은 과거에 비해 그 영역이 훨씬 세분화되고 다양해짐으로써 공연자, 이론가, 관객 등 이를 수용하는 계층의 시각과 사상 또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전통 혹은 고전은 일정 부분 유지되면서도 이미 이를 파괴하거나 새롭게 재구성 해보는 작업 또한 오늘날 더 이상 낯선 것이라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에 동기<sup>1)</sup>를 부여하였던 무용예술의 하나인 고전 발레는 그 전통은 소수 엘리트 계층과 특수한 목적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오랜 시기에 걸쳐 하나의 문화로 성장함으로써 오늘날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백조의 호수(Swan Lake)», 「호두까기 인형(The Nutcracker)», 「잠자는 숲속의

---

\* 주저자 및 교신저자, 동아대, 성균관대 강사 balletyj@gmail.com

1) 무용사적 관점에서 볼 때 고전 발레는 주제나 형식적인 면에서 새로운 현대 발레의 모습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발로 인해 현대 무용이라는 새로운 춤의 형식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이것이 긍정적 측면에서의 확장이든 부정적 반발이 혁신으로 발전하든 고전 발레는 새로운 움직임을 향한 자극, 반성, 흥미 등 여러 측면의 동기를 제공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미녀(The Sleeping Beauty)」 등 오랜 역사를 지닌 고전적인 발레 작품들은 발레 애호가들의 전용물에서 나아가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역사적으로 예술성을 검증받은 작품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직업 발레단이라면 유명한 고전 발레의 다수를 빈번히 무대에 올리며 발레단의 레퍼토리를 넓혀 나가고 있다. 축적된 레퍼토리는 한 발레단의 자취와 계보를 형성하는 역사적 기록이 되며, 질적인 성장과 흥행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문헌에서 발레는 시대별로 작품의 미학적 구조나 안무적 특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논의되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시대적 사상과 시각의 변천을 거듭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일종의 '문화적 행위'로서 사회와 소통하며 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고전 발레에 대한 고찰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레 레퍼토리 중 각광을 받고 있는 「호두까기 인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현상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9세기 러시아 고전 발레의 대표작인 「호두까기 인형」은 12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의례적으로' 공연되어지는 발레이다. 이는 시공을 초월하여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발레단에 의해 선보임으로써 오랜 기간 명성과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문화적 행위'와 '사회와의 소통'으로서의 발레 공연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호두까기 인형」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 II장에서는 우선 이론적으로 사회와 문화 속 발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연구의 시각에서 다루어진 발레의 주요 연구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제 III장에서는 「호두까기 인형」의 초기 역사와 변천을 발생지인 러시아와 흥행의 근거지가 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IV장에서는 고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지니는 상징적 코드의 기본 구조를, 마지막 제 V장에서는 「호두까기 인형」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크리스마스의 상징적 문화로 정착하게 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로는 제니퍼 피셔의 단행본 (Jennifer Fisher, 2003)과 논문(2003-2004), 캐서린 건서 코다 (Catherine Gunther Kodat, 2000), 롤랑 존 와일리(Roland John Wiley, 1985) 등이 있다. 피셔의 저서 *Nutcracker Nation*은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버지니아

(Virginia), 캐나다 토론토(Toronto)에서의 현지조사와 개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공연 양상과 지역적 특성을 민족지학적(ethnology) 입장에서 연구하였다.<sup>2)</sup> 또 다른 피셔의 논문인 “Arabian Coffee in the Land of Sweets”는 「호두까기 인형」 2막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 중 하나인 아라비안 커피를 라반 동작 분석(LMA),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그리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 코다는 냉전시대 사상과 당시 미국에서 공연되었던 「호두까기 인형」의 연관성을, 와일리는 차이코프스키의 업적과 「호두까기 인형」의 발레 음악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 선행연구로는 홍세희(2009), 김은미(2006), 윤수정(2002), 현주미(1999), 이지원(1996)이 매튜 본, 모리스 베자르, 혹은 마크 모리스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중심으로 현대 발레의 연출이나 안무의 성향을 논의한 바가 있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호두까기 인형」의 사회적 자생력의 근간을 밝히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수많은 버전의 개성적인 안무들에 대한 세부적 분석보다는 발생과 제작, 공연의 시대적 흐름과 문화적 파급을 논의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므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호두까기 인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제작이 되었기에 지역적 특성을 모두 다루는 데에는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특히 러시아의 초연작과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초기 「호두까기 인형」의 작업과 확산 경향이 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한 발레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적 가치에서 나아가 사회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순응하고 때로는 변모하는 현상을 살펴보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한다.

2)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Univ. of California, Irvine) 교수로 재직 중인 무용학자 제니퍼 피셔는 캐나다 요크 대학교(York Univ., Toronto)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Univ. of California, Riverside)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녀의 교육적 배경과 경험은 민족지학적 접근에 필요한 연구 지역과 대상(지역 발레단과 주변 관계자 등)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언급한다. J. Fisher(2003). *Nutcracker Nation*(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 ix - xv.

## II. 담론으로서의 고전 발레

1980년 후반 무용학에 있어 문화연구와 비평이론의 활발한 도입은 무용이론의 영역을 넓히고 춤과 사회, 문화로서의 춤 등을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기존의 무용이론 중 상대적으로 문서화가 잘 되어있는 무용사 분야에도 폭넓은 소재를 제공하였고 유용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셀마 진 코헨(Selma Jeanne Cohen), 낸시 레이놀즈(Nancy Reynolds), 린 개라폴라(Lynn Garafola), 수잔 오(Susan Au)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무용사 연구는 역사적 사건의 선별과 당대의 유명 무용수 혹은 안무가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집(anthology), 연대기, 혹은 한 시대의 현상에 중점을 둔 역사서들은 서양의 무용사를 발레와 현대무용으로 이분화 시켰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포스트 모던댄스, 컨템포러리 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화된 역사적 자료들은 역사가들에 의해 고증되고 엄선된 기록들의 한정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자료들로 무용학 연구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무용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자료로서 무용학의 범주를 확장하고 타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용사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건을 부정하거나 흑백논리의 양면성을 부각시키고자하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역사를 각각도로 바라봄으로써 소외된 부분을 재현하고 조명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문화연구에서의 역사 분석은 몸의 사회적 인식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춤추는 몸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가능케 하며, 춤과 사회와의 교류, 타협, 전파 등 역동적 흐름을 통해 인간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사고를 가능케 한다. 또한 문화연구의 발생 시기는 현대 예술과 대중문화의 시대와 맞물려 특히 현대 예술 매체와 공연에 관한 논의를 유용하게 해주었다.

구조주의의 언어학적 특성에서 기원한 담론(discourse)은 문화연구에 있어 상징과 의미를 읽는 핵심적 화두라 할 수 있다. 담론은 의미의 언어적인 특징이나 텍스트의 구조 분석 뿐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비평적 기능을 심화시키는 근원적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담론의 권력적 성향과 파급 효과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정체성과 삶

을 탐구하고자 하는 작업을 풍부하게 해준다. 인문학적 성찰을 도입한 문화연구는 춤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몸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성(gender, sexuality), 정체성(identity), 인종(race), 이념(ideology) 등 여러 사회적 이슈들의 재현과 구축에 관한 연구에 학문적 모형을 제공하여왔다. 이론적 특성상 하나의 구심점이 부재하다는 측면이 때론 연구의 난해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지만, 무용학자들은 춤을 비평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서술하려 함으로써 무용의 특수성을 살린 이론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

담론으로서의 발레는 일종의 문화 텍스트로서의 발레가 구축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으로부터 파생된다. 고전 발레는 현대무용의 태생적 배경과 맞물려 고전의 가치/한계의 이분법으로 분류되어 논해지며, 종종 자유, 도전, 혁신 등으로 간주되어지는 현대무용의 정체성에 힘을 더해주는 형국이 되어왔다. 새로운 장르 탄생에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던 발레의 논란은 문화연구에 있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발레 자체가 지니는 미학적 특성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발레가 형성하여온 미학의 본질을 사회적 이념과 실천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무용학자 앤 데일리(Ann Daly)는 에세이, <고전 발레: 차이의 담론, Classical Ballet: A Discourse of Difference>에서 발레의 미학과 구조는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성적 차이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서술한다.<sup>3)</sup> 본질주의(essentialism)의 시각에서 기인한 관습적인 여성성/남성성의 담론은 오랜 세월을 거쳐 다수에 의해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질서를 유지해왔다. 이는 담론이 지니는 권력의 특성상 젠더의 '이상적인' 구분은 대중의 생활과 사고 전반에 광범위한 형태로 파급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다.<sup>4)</sup>

3) J. Desmond(ed.)(1997). *Meaning in Motion: New Cultural Studies in Dance*(Durham: Duke University Press), pp. 111-119.

4)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Madness and Civilization*(1965),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 The Discourse on Language*(1972), *Discipline and Punish*(1977), *The History of Sexuality*(1978) 등 여러 저서에서 권력(power), 지식(knowledge), 담론(discourse)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푸코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 있어 권력은 일방적, 가시적이거나 처벌만을 위해 존재한다기보다는 사회 도처에 만연해 있으며,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길들이고 통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삶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푸코에 있어 담론은 행위나 언술의 반복과 확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실(true)' 혹은 '정상(normal)' 이라는 전제를 생성하고 '거짓(false)' 을 배제하는

발레의 범주에서 볼 때 젠더 차이는 단순히 작품 속 남녀 역할과 행위의 차이 뿐 아니라 발레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서 나타난다. 의상, 신체의 형상, 움직임의 어휘, 연습 방법, 춤 테크닉, 이야기, pas de deux의 구조 등 많은 것들이 규범화된 ‘이상적인’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 이와 같은 젠더의 이분법은 고전주의의 정수 혹은 고전 발레의 미학으로 인식되어 발레를 소비하는 주체 뿐 아니라 나아가 발레가 소비되어지는 곳에 깊이 뿌리내려져있다. 데일리가 지적하는 ‘차이의 담론’은 고전 발레의 미학을 대변함과 동시에 예술로서의 발레의 상징들이 전통적 사회 규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시 예술을 향유하는 사회에 재생산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무용학자 수잔 리 포스터(Susan Leigh Foster)의 에세이 〈발레리나의 남근적 포인트, The Ballerina's Phallic Point〉는 고전적인 발레 미학의 특성과 매너리즘을 지적하는 데에서 나아가 발레의 세계적인 보편화 현상에 대한 비평을 보여준다. 언어적 특질과 정신분석학을 융합시킨 라캉의 이론을 차용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포스터는 발레리나의 움직임 자체를 남근적 욕망(phallus) 체계에 비유한다. 이는 곧 남성의 법칙에 근거한 질서, 통제, 고정된 의미와 제한된 행위 등의 재현이라 보는 것이다. 나아가 발레가 오늘날 일종의 거대 담론을 형성하며 세력을 확장한 이면에는 작품을 전달하는 발레리나의 숭배와 상품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19세기 초기 자본주의의 상업적 전략과 연계된다고 언급한다.<sup>5)</sup> 따라서 무대 위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수동적 이미지는 홍보의 경쟁과 후원자들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등 공연 외적인 요소들과 분리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상호 영향을 주며 나아가는 현상을 가져왔다.

고전 발레가 오랜 세월 구축하여온 주류 담론의 대안으로, 현대 공연 예술에서는 전통적 규범을 깨뜨리고, 고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레에 있어 전통이 수립한 미학과 훈련이 주

---

지식을 형성시키며, 이는 대중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는 권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라 말한다.

5) S. L. Foster(ed.)(1996). *Corporealities: Dancing Knowledge, Culture and Power*(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6-7.

는 교육적 가치는 여전히 인정받고 있음과 동시에 급변하는 현대 사회와 문화의 경향 속에도 고전 발레는 문화적 힘을 과시하며 그 영역을 굳건히 하고 있다.

### III. 「호두까기 인형」의 제작과 발전

#### 1. 러시아: 「호두까기 인형」의 탄생 비화

발레사에서 「호두까기 인형」은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와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로 대변되어지는 고전주의 발레 시대의 대표작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 1892년 12월 6일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St. Petersburg)의 마린스키 극장(Mariinsky Theatre)에서 초연되었던 「호두까기 인형」은 고전 발레의 시기를 발레 루스(Ballet Russes) 이전까지 약 20여년으로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러시아 황실발레의 절정기에 선보인 작품이었다. 발레는 당시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독일의 낭만주의 작가 호프만(Ernst Theodor Wilhelm Hoffmann)의 단편 소설,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대왕, The Nutcracker and the Mouse King, 1816〉을 모티브로 하여 레프 이바노프(Lev Ivanov)가 안무하였으며,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작품 중 하나로도 알려져 오늘날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줄거리에 따르면 발레는 독일을 배경으로 크게 2막으로 나누어지는데, 제 1막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명절 분위기를 여러 가지 사건으로 풀어가며, 제 2막은 주인공 클라라(Clara, 혹은 마리 Marie)와 왕자로 변신한 호두까기 인형이 그려나가는 환상적 세계를 보여준다. 전자가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면 후자는 동화와 같이 클라라의 꿈속에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환상이라는 비현실적 상황의 느낌을 살려 묘사하였다 할 수 있다.

호프만의 소설이 발레 「호두까기 인형」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탄생 이면에는 대본, 안무, 음악 등 여러 측면에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였다. 실제 호프만의 원작이 제작의 동기를 제공하긴 하였으나 발레 대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프랑스 문학가인 알렉산드르 뒤마(Alexandre Dumas)의 번역본이었다. 이는 독일풍 낭만주

의 문학이 지니는 판타지 성향처럼 호프만의 원작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가짐과 동시에 간략한 내용인 반면, 뒤마의 번역본은 이보다 좀 더 가볍고 극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발레화하기에 용이하였다고 한다.<sup>6)</sup> 뒤마의 글은 당시 고전 발레의 아버지라 칭송받던 마리우스 프티파와 황실극장의 감독 출신이었던 이반 브세볼로즈스키(Ivan Vsevolozhsky)에게 전달되어 발레를 위한 구체적인 대본 작업에 이용되었다. 뒤마의 각색되어진 줄거리는 프티파와 브세볼로즈스키에 의해 다시 각색됨으로써 발레에 보다 적합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친 대본은 안무에 직면하였을 때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 여러 대작의 성공을 바탕으로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새로운 전막 발레의 제작을 꿈꾸었던 프티파는 대본 작업 당시부터 안무 작업을 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병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유로 「호두까기 인형」의 실제적인 안무는 조수 이바노프가 진행하였으며 오늘날 발레 원작의 안무는 이바노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sup>7)</sup>

프티파의 대본, 이바노프의 안무와 함께 「호두까기 인형」의 또 다른 주요 요소인 음악은 러시아 음악의 거장 차이코프스키에 의해 작곡되었다. 이미 발레 음악 작곡에 있어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인지도를 높였던 차이코프스키는 대본의 내용과 장면을 숙지하여 공연에 적합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차이코프스키는 진행 중이었던 오페라의 작곡과 여동생 사샤(Sasha)의 죽음으로 발레 음악의 작곡에만 전념하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의문을 품으며 어렵게 완성된 곡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새로운 발레가 제작, 초연되었으나 이바노프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은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프

6) 안무가의 선호로 뒤마의 번역본이 선택되기는 하였지만, 미국 음악학자 롤랑 존 와일리(Roland John Wiley)는 발레의 대본을 ‘호프만과 뒤마의 혼종’이라 지적하면서, 호프만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R. J. Wiley(1985). *Tchaikovsky's Ballets: Swan Lake, Sleeping Beauty, Nutcracker*(Oxford: Oxford UP), p. 221.

7) 오늘날 대부분의 공연 프로그램이나 문헌에는 이바노프의 이름이 안무가로 표기됨으로써 그 공을 돌리고 있으나 가끔은 프티파의 작품으로 표기되거나 프티파의 여러 작품들과 함께 그의 업적으로 묻히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티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본은 호프만의 원작 뿐 아니라 뒤마의 번역본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특히 현실세계의 1막(일상의 크리스마스 장면)과 상상의 세계인 2막(환상적인 사탕요정의 나라)을 연결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논리적인 개연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주인공 클라라와 생쥐대왕 무리와와 전투 장면 역시 맥락상 갑작스럽게 급조된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한다.<sup>8)</sup> 초연 당시의 안무는 성인들의 춤이 주축이었던 과거 발레와는 달리 아이들의 모습과 마임이 부각되고, 사실과 환상의 불분명한 조합 등으로 혼선을 가져왔으며, 관객에게 있어선 유명 무용수들이 주는 명쾌하고 훌륭한 춤의 볼거리를 찾고자 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평가들의 큰 주목을 받지도 못했으며 이후 「호두까기 인형」은 꾸준히 공연이 되지 못하였고, 때때로 전막보다는 부분이 상연되기도 하였다.

관객에게 각인되지 못했던 「호두까기 인형」이 본고장인 러시아에서 정착을 하게 된 계기는 1934년 소비에트(Soviet Union) 발레 시절 키로프 발레의 단장이었던 바실리 바이노넨(Vasily Vainonen)이 무대에 올리면서 부터이다.<sup>9)</sup> 바이노넨은 러시아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대본의 골자는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줄거리의 전개와 춤이 주는 스펙터클을 보강함으로써 「호두까기 인형」의 부활을 가져왔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정리와 보강이 되었으나 러시아의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라는 사회적인 축제와 연결되기에는 시기상조였다. 물론 작품 자체만 두고 볼 때 소재와 배경에 있어서 뚜렷하게 크리스마스라는 모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체제 하에서 대중적인 축제 혹은 문화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발레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진 못하였다. 또한 소비에트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은 여전히 “어린이 중심의 내용과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의 효과적인 결합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sup>10)</sup> 그렇지만 시기상 키로프의 공연을 선

8) C. G. Kodat(2000). Dancing Through the Cold War: The Case of The Nutcracker,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33(3), pp. 2-3.

9) 바이노넨 이전에도 「호두까기 인형」은 알렉산더 고르스키(Alexander Gorsky)나 표도르 로푸코프(Fyodor Lopukhov)에 의해 재안무가 되었으나 이들 버전은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0) J. Fisher(2003), p. 18.

두로 러시아의 고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러시아 출신의 예술가들에 의해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키로프와 볼쇼이 발레가 레퍼토리로 정착시키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였던 「호두까기 인형」은 고전 발레의 미학을 충실히 수행하며 완성되어가고 있었다.

## 2. 미국: 「호두까기 인형」과 크리스마스 문화의 만남

러시아에서 제작된 「호두까기 인형」은 20세기 초 발레 루스나 북미와 유럽의 지역 발레단에 의해 초연이 되면서 서구에서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오늘날 「호두까기 인형」= 크리스마스 전통 이란 공식은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되어왔다.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다지 잘 제작되어지지 못했던 한 러시아 발레가 서구 사회 속에서 문화를 형성하며 발전된 이면에는 미국으로의 유입이 큰 원인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세계는 발레 루스의 활동으로 혁신적인 러시아 예술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으나 제 2차 세계 대전으로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분야들이 격변기를 맞이하였고, 이후 이어진 냉전 체제로 인해 소비에트 연방(구 러시아 제국)과 미국은 삶의 가치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경로로 발전하게 되었다. 러시아 출신 예술가들의 서구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출은 그들의 예술적 이상과 활동을 넓혀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개인적인 예술적 자유의 보장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발달, 소비문화의 활성화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라는 양대 축으로 형성되는 세계 정세속에서 이 두 문화의 전통을 경험하고 응용한 대표적 인물이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이다. 러시아 출신의 무용수이자 안무가 조지 발란신은 '발레의 미국화'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발란신은 고전 발레의 산실인 러시아 황실발레학교에서 엄격한 유년기를 보내고, 발레 루스에서 안무 활동을 하다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인 링컨 커스타인(Lincoln Kirstein)의 초청으로 미국에 첫발을 내딛었던 발란신은 발레의 초기 교육과 뉴욕시티발레단을 이끌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나갔다. 많은 무용학자와 비평가들은 발란신 발레의 정수로 미국의 실용주

의, 민족성, 여성성의 반영 등을 언급해왔다.<sup>11)</sup> 실제로 「아공(Agon)」(1957), 「네 가지 기질(The Four Temperaments)」(1946), 「아폴로(Apollo)」(1928) 등 발란신의 대표 역작이라 불리는 작품들의 미학적 구조는 고전 발레가 주는 스펙터클이나 서사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점이 가장 괄목할 만한 발란신의 업적이라고 평가할 때, 「호두까기 인형」의 제작은 발란신의 주요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호두까기 인형」을 제작하던 시기에 발란신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왜 내가 「호두까기 인형」을 제작하려 하는지 묻는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레퍼토리를 만들기 위한 나의 일이다. 극장과 발레에 임하는 나의 자세는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sup>12)</sup>

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초연과 그 이후의 몇몇 재안무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작품을 보완하여 오늘날 대표적인 고전 발레의 레퍼토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발란신이 제작을 계획할 당시 미국 관객들에게 「호두까기 인형」은 생소한 작품이었다. 발란신의 뉴욕시티발레단은 1954년 「호두까기 인형」을 초연한 이래로 매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이를 공연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 지역의 「호두까기 인형」 제작과 확산에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다.

11) 미국 발레에 있어 발란신의 공헌과 업적은 많은 무용 문헌 속에 나타나 있다. 발란신의 작품은 발란신 재단의 관리 하에 뉴욕시티발레를 통해 잘 보존되어 공연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맥락의 비평적 시각에서도 그의 예술적 비전과 안무 성향이 활발히 논의되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앤 데일리(Ann Daly)는 젠더의 재현과 여성적 성향의 구조에 대해, 브렌다 디슨 가찰드(Brenda Dixon Gottschild)는 발레의 미국화와 흑인 무용의 유용을 연관 지어 논하고 있다. A. Daly(1987). *The Balanchine Women: Of Hummingbirds and Channel Swimmers*, *The Drama Review: A Journal of Performance Studies* 31(1), pp. 9-21. B. D. Gottschild(1996). *Digging the Africanist Presence in American Performance: Dance and Other Contexts* (Westport, CT: Praeger), pp. 59-79.

12) T. Teachout(2004), *All in the Dances: A Brief Life of George Balanchine* (Florida: Harcourt Inc.), pp.104-105.

## IV. 「호두까기인형」의 기본적 상징 코드

### 1. 이상적인 가족 담론

60년대 이후 고전 발레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대다수 서구의「호두까기 인형」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보인다. 「호두까기 인형」이 ‘자연스럽게’ 대중의 삶 속에서 명절의 통과 의례로 인식되는 것은 발레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와 사회적 관념과의 연관을 통해 이해되어진다. 무엇보다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동화로서의 「호두까기 인형」에서 나아가 가족 중심의 담론을 시각적으로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스탈바움(Stahlbaum)의 거실이 배경인 1막은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너무나도 친숙한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막이 열리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 둘 모여 들며 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의 정을 확인한다. 크리스마스는 서구 사회에 있어 연간 최대 명절이다. 단 하루의 기념일이 아니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에 걸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며 사랑과 여유를 나누는 기간이기도 하다. 늘 함께 하는 가족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호두까기 인형」이 그려내는 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은 바로 가정이다. 발레의 처음 부분은 ‘만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어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며,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친昵난만하게 주위를 뛰어다니고 호기심 어린 몸짓으로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호두까기 인형」속 가족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느낌을 달리한다. 이바노프 버전을 필두로 초기 소비에트 발레에서 나타나는 스탈바움 가족의 모습은 고위관료의 이미지에 걸맞게 귀족적인 분위기를 고수하였다. 실제로 성인들의 상체는 잘 통제되어 느리면서도 우아하게 움직이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걸음걸이는 조용하면서도 간결한 귀족적 자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의상 역시 잘 차려입은 정장과 드레스 차림이 눈길을 끌며 전체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거실을 보여준다. 이는 원작에 충실하여 주인공의 사회적 지위와 시대적 배경을 19세기 정도로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란신의 작품은 기본적 골격에서는 원작과 닮았으나 편안하고 가정적인

미국 중산계층의 모습을 담았다고 한다.<sup>13)</sup> 이러한 중산층의 이미지는 냉전시대 미국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맥락을 같이한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이 극명히 대치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미국 발레는 평범한 가족 일상의 소중함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중시되었다. 「호두까기 인형」에서 그려지는 평범한 가족은 남성 중심-특히 아버지 중심의-전통적인 가부장제도를 전제로 한다. ‘아버지-어머니-아들-딸’로 구성되어지는 한 가족은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느껴지는 누구나 꿈꾸는 ‘안정된’ 가족이다. 주인공의 가족을 포함해 파티에 초대된 인물들 역시 부부 혹은 자녀간의 존경과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하며 전통적 가족상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형제들 간의 라이벌 구도(sibling rivalry) 역시 전통적인 가족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만든다. 따라서 주인공 클라라를 짓궂게 놀리는 오빠 프릿츠(Fritz)의 행동 또한 가족적인 모습을 형상화 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들 간의 시샘, 질투, 장난은 위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기 보다는 아이들의 필수불가결한 성장과정 혹은 통과의례를 의미하며, 부모에게는 올바른 훈육법과 책임감을 부여시키는 성숙한 삶의 일부본인 것이다. 가족 중심의 이러한 장면들은 아이들이 있는 성인 관객이나 부모의 손을 잡고 객석에 앉은 어린 관객 등 누구라도 일상에서 만나왔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감상 포인트라 할 수 있다.

1막의 춤은 전체적으로 춤 테크닉의 나열보다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역할과 공간을 시각적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체계와 성장을 드러낸다. 어른들은 서로의 만남을 반가워하며 가볍게 티치를 하고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는 등 성숙한 인사의 형식을 취하며 주위를 돌아다닌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주위에서 관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적인 안정감을 준다. 반면 유명한 ‘children’s marching and gallop’ 장면에서 나타나듯이 아이들의 춤은 작은 스텝과 점프로 이루어진 움직임들이 많다. 이들은 남녀 듀엣 혹은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와 원을 그리거나 열을 지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작품 속 세트 로 주목을 받는 크리스마스 트리<sup>14)</sup> 또한 화려한 시각적 효과 뿐 아니라 화목한 가정

13) C. G. Kodat(2000), pp. 6-7.

14) 크리스마스 트리는 작품 속에서 관객들의 관심 속에 가장 비중 있는 무대 세트 중 하나로, 2차원의 평면 페인팅이나 3차원의 나무 조형물을 이용해 실제 모습을 재현해낸다. 종종 2

을 의미하는 상징이다. 무대의 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트리의 장식은 가족들의 협력이 묻어있는 산물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간을 투자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 조형물인 것이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아래에 놓여있는 선물들은 춤에 있어서 중심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이한 모습을 한 남자 드로셀마이어(Drosselmeyer)의 등장은 즐거운 파티의 분위기에 전환을 가져온다. 마법사, 대부, 기이한 노인, 시의회 의원 등 다소 과장적이며 복합적인 캐릭터를 지닌 드로셀마이어의 행위는 환상 속 장면이 펼쳐질 2막을 암시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마술쇼 또한 2막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춤들의 전조를 알린다. 드로셀마이어의 선물인 호두까기 인형은 클라라와 오빠 프릿츠 사이에서 큰 갈등을 유발시키지만 후에 이 인형은 클라라를 환상으로 인도하는 파트너가 된다.

## 2. 크리스마스 판타지의 부활

1막이 서사적 형태를 띤 가족 담론의 장이라면 2막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과거 혹은 현재에 가지고 있을 법한 공통적인 크리스마스 판타지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이라 할 수 있다. 1막의 마지막 클라라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왕의 전쟁 장면은 현실과 환상을 나누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클라라의 가상적인 성장을 암시한다.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은 클라라를 어린 딸의 모습에서 성숙한 소녀로 이끄는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사탕과자의 나라 (The Kingdom of Sweets)' 로 명명되어진 2막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의 세계는 크리스마스 새벽에 이루어지는 꿈인 동시에, 무의식 속 크리스마스의 상징적 이미지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적 원형(archetype) 들을 잘 조합하여 의인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탕과자' 라는 명칭은 크리스마스에 흔히 즐겨먹는 달콤한 종류의 과자류를 뜻

---

막으로 넘어가면서 트리는 크기와 모습이 변화하여 클라라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유명한 일화로 발란신은 발레 제작 당시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트리의 크기에 무엇보다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T. Teachout(2004), pp. 105-106.

한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파티 음식의 중심이며 따라서 온갖 크리스마스 장식의 소품에도 응용된다. 2막은 작지만 상징적인 요소들을 춤으로 표현함으로써 ‘따뜻하고 달콤한’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현실/환상이라는 이분법의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1막의 가족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감성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따뜻함과 달콤함’이라는 이상적인 감성과 함께 대중들이 즐겨먹는 음식을 통해 친밀함과 편안한 요소들을 꾸준히 부각시킴으로써 명절의 의미를 운색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1막은 춤을 통한 스펙터클에 치중하지 않는 반면 2막은 고전 발레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파 드 두(pas de deux)와 디베르티스망 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볼거리로서의 춤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명한 디베르티스망인 스페인 초콜릿(Spanish chocolate), 아라비아 커피(Arabian coffee), 중국 차(Chinese tea) 등은 친숙한 크리스마스 음식들과 춤을 결합한 장면이다. 여러 음식들이 인기 있고 친숙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떠올리게 한다면,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음식들의 품질이 우수한 생산지를 연상시키고자 한 안무 의도를 반영한다. 발레의 구조 상 디베르티스망은 플롯과는 무관하게 흥미위주로 전시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스페인, 아라비아, 중국 등의 지역적 색채는 각 음식들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암시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이용되고, 이는 철저히 서구인의 시각과 지식에 근거한 춤으로 표현된다. 발레의 맥락에서 보면 주인공인 독일인 소녀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이국적인 인형들과 동화의 세상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간접적인 호기심이 투영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구인의 해석은 ‘열정만 넘치는 스페인인’, ‘에로틱한 아라비아인’, ‘어린애 같은 중국인’ 등 고정화된 이미지의 차용으로 많은 고전 발레가 지니는 ‘오리엔탈’ 풍의 진부한 형식(cliché)을 드러내고 있다는 논란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 V. 「호두까기 인형」의 소비와 변천

발란신의 버전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된 「호두까기 인형」은 축제와 같은 시기와

맞물려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특히 70년대를 지나면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셀 수 없이 많은 발레단들에 의해 어김없이 공연이 되어졌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족적인 주제, 명절을 축하하는 특별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각적인 즐거움, 동심을 자극하는 적절한 공상,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 차이코프스키의 명성 등 이러한 점들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복합적 요소들이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모든 고전 발레가 미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발레는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애호가들의 전유물 혹은 여성 취향의 예술이라는 인식은 대중 속에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sup>15)</sup> 하지만 「호두까기 인형」은 ‘평범한’ 가족의 가치와 다수가 지니는 어릴 적의 공통적 경험을 ‘순수함’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중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초연 버전에 대한 재해석이 바탕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백인 중산층’이라는 당시 서구 사회의 주류에 호소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늘날 「호두까기 인형」의 대중적 인기와 보급은 예술로서의 가치 그 이상으로 폭넓은 소비문화를 형성하였다. 직업 발레단에게는 ‘캐시 카우(cash cow)’ 즉, 꾸준히 이윤을 내게 해주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sup>16)</sup> 전통적인 「호두까기 인형」의 대중적 인지도는 발레 작품 자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동기가 되었다. 발란신이나 바이노넨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이 뉴욕시티발레단, 키로프 발레단 혹은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 의해 수십 년을 이어오며 현재까지 공연되는 한편,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각색 혹은 혁신적인 변화 역시 꾸준히 있어왔다. 이는 「호두까기 인형」이 일회성으로 그쳐버린 작품, 혹은 대중적인 호소력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현상이다.

15) 재미있는 한 예로,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진통제 <타이레놀>의 광고가 발레의 여성적 취향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광고는 「호두까기 인형」을 관람하려는 한 부부의 이야기로, 발레를 좋아하는 부인과 공연보다는 집에서 스포츠를 시청하고 싶어 하는 남편이라는 상황이 설정된다. 부인은 갑자기 찾아온 두통으로 공연 관람을 망설이며 진통제를 복용한다. <타이레놀>은 결국 부인의 두통을 말끔히 치유하여 부부를 공연장에 가게 만들고, 마지막에 정장을 차려 입은 남편은 두통이 온 듯한 불행한 표정으로 “발레 공연을 위해서는 타이레놀을 가져가라” 라고 말한다. J. Fisher(2003), pp. 52-53.

16) A. Macaulay(2009), A ‘Nutcracker’ Lover Explains Himself, *The New York Times* (Dec. 16).



현존하는 수많은 「호두까기 인형」은 내용과 형식적인 면을 고려하며 기하급수적으로 파생되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자면 기존 고전 발레의 전통적인 내용과 틀을 대부분 유지하며 춤이나 세트에 있어 부분적인 첨가나 수정을 하는 경우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파격적인 각색이나 새로운 춤 언어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안무가의 기호나 민족적 색채를 가미하여 관객에게 있어 친편일률적인 고전 발레의 모습보다는 변화를 찾는 재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1막에선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습, 다양한 소품의 진열 방식, 어린 무용수들의 연령대, 드로셀마이어의 행동 등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국적 취향으로 구성된 2막의 디베르티스망은 1막보다 더 다양한 각색을 통하여 발레단의 민족적 배경과 안무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때로 하와이 발레단은 홀라를, 스코틀랜드 출신은 전통 의상인 켈트를 첨가하기도 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사탕요정의 춤(sugar plum fairy)' 대신 '갈색사탕요정의 춤(brown sugar fairy)'을 개발하기도 하였으며,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마더 진저(mother ginger)'를 대신하여 '마더 피냐타(mother piñata)'를 선보이기도 하였다.<sup>17)</sup>

부분적 변화를 통한 각색과는 달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주제 혹은 모티브를 차용하면서도 전통적인 고전 발레와는 배치되는 새로운 시각을 담은 「호두까기 인형」들도 꾸준히 제작되었다.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성적 정체성을 재해석한 마크 모리스(Mark Morris)의 「하드 너트(Hard Nut)」, 고아원을 배경으로 시각적 판타지를 극대화한 매튜 본(Matthew Bourne)의 「호두까기 인형!(The Nutcracker!)」, 재즈와 탭 댄스를 바탕으로 한 드리카 오버톤(Drika Overton)의 「클라라의 꿈: 재즈 호두까기 인형(Clara's Dream: A Jazz Nutcracker)」,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해석을 도입한 모리스 베자르(Maurice Béjart)의 프랑스 풍 「호두까기 인형」 등은 기존의 「호두까기 인형」이 가진 고전 발

17) J. Fisher(2003-2004). Arabian Coffee in the Land of Sweets, *Dance Research Journal* 35(2)/36(1), p. 157. 마더 진저와 마더 피냐타는 다산의 상징으로 트로이의 목마처럼 스킷트 속에 아이들을 동반하여 같이 즐기는 춤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볼거리 중 하나이다. 멕시코 문화에서 피냐타는 아즈텍(Aztec) 문화에서 기원한 상징적 형상으로 토속 신의 모습 혹은 기운을 담고 있다. 이는 인형 혹은 대형 조형물의 모습 등으로 제작되어 아이들의 출생과 생일파티의 놀이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레의 미학과 정형에서 벗어나 금기시되었던 현대 사회의 이슈나 대중문화와의 연계를 통해 재현의 영역을 넓혀나갔다. 다수의 작품들은 호평과 함께 특정 관객층을 확보하며 인기 대열에 올라 정기적으로 공연되어지는 레퍼토리로 발전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의 「호두까기 인형」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함과 순수한 동심을 전제로 생명력을 꾸준히 유지하였던 현상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클래식 공연의 형식을 넘어 현대의 문화적 사고를 반영하는 다양한 크리스마스의 산물로 끊임없이 재탄생되었다 볼 수 있다. 특히 TV, 애니메이션, DVD와 같은 상업적 매체의 변천과 발전 또한 「호두까기 인형」에 있어서 인기를 지속하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발레의 주요 구성요소인 호프만의 이야기는 아동과 성인, 지식인과 일반인 등 여러 독자층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출몰이 되었다. 또한 차이코프스키 스스로가 발레 음악으로서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회의를 표출한 바 있지만, 이는 1940년 월트 디즈니(Walt Disney)의 애니메이션 「판타지아(Fantasia)」<sup>18)</sup>를 통해 미국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왔으며, 연이은 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제작에 동기를 부여하였다.<sup>19)</sup> 과거 문학서적과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고전적인' 형태의 매체로 발레 제작에 힘을 불어넣었다면, 그 후 보다 더 시각적이면서 서술적인 형태를 충족하는 발레로서의 「호두까기 인형」은 매스컴의 활용을 통해 예술적인 가치와 동시에 상품적 가치를 높게 되었다. 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은 1957년과 58년에 미국 CBS 채널을 통해 처음 방영됨으로써 뉴욕시티발레단에 예술적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미국 전역 크리스마스 전통으로 급속히 뻗어나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sup>20)</sup> 발레단들의 공연 증가와 함께 방송매체를 통한 「호두까

18) 애니메이션 「판타지아」는 발레의 내용이나 형식과는 무관하나,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모음곡에 맞추어 여러 가지 요정, 물고기, 버섯, 낙엽 등의 우아하고 리듬감있는 움직임과 색채의 예술을 선보임으로써 대중들에게 크나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호두까기 인형」음악의 친숙함의 근거는 「판타지아」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ttp://en.wikipedia.org/wiki/Fantasia\\_\(film\)#Nutcracker\\_Suite](http://en.wikipedia.org/wiki/Fantasia_(film)#Nutcracker_Suite)

19) T. Teachout(2004), pp. 104-105.

20) *Ibid.*, p.106. 이 CBS의 「호두까기 인형」방영은 다소 축약된 버전이긴 하지만, 발란신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호두까기 인형」이 처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 뿐 아니라, 당시 미국 내 전 발레 공연을 통틀어 TV 전파를 탄 첫 번째 발레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기 인형」의 확산은 꾸준히 이어졌다. 1965년 류 크리스텐슨(Lew Christensen) 버전의 San Francisco Ballet 「호두까기 인형」은 새해 첫날 ABC 에서 방영되었고, 1977년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안무의 American Ballet Theatre 버전 「호두까기 인형」은 CBS 에서 선보였으며 이후 PBS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영됨으로써 ‘명절의 전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더욱 널리 각인시켰다.

최근 2007년부터 예술, 문화에 중점을 둔 미국 케이블 채널 Ovation TV에서는 ‘호두까기 인형 전쟁(Battle of the Nutcrackers)’이라는 제목 하에 6가지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에 대한 흥미로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작품과 내용의 홍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마크 모리스의 하드 너트 - 에미상 노미네이트, 전통에 현대성을 입힌 작품, 작년 챔피언
- \* 발란신의 즐거운 해석 「호두까기 인형」- 보다 전통적인 시각의 작품, 뉴욕시티 발레와 영화 〈나홀로 집에〉의 스타, 맥컬리 컬킨과 함께!<sup>21)</sup>
- \* 매튜 본의 「호두까기 인형」- 색채의 향연을 곁들인 새로운 줄거리 첨가, 윌리 윙카(Willy Wonka)풍의 캔디<sup>22)</sup>를 감상하세요!
- \* 볼쇼이 발레 「호두까기 인형」- 나탈리아 아키펠라와 이렉 무카메도프 주연, 홈 어드벤처를 가진 작품 (차이코프스키의 고향이자 1800년대 「호두까기 인형」이 초연된 러시아 작품)
- \* 모리스 베자르의 「호두까기 인형」- 베자르 발레 로잔느가 공연, 새로운 캐릭터와 프랑스 대중음악이 기존 전통에 첨가된 작품
- \* 영화 「호두까기 인형」- 퍼시픽 노스웨스트 발레단 공연, 호프만의 원작과 가장

21) 발란신 버전인 이 「호두까기 인형」은 1993년 영화화 되어 워너 브라더스(Warnar Brothers)사에 의해 판매되었다. 특히 영화배우 맥컬리 컬킨이 어린 왕자 역으로 등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는 컬킨의 유일한 발레 영화 출연이었다.

22) 윌리 윙카는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의 흥행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가공 인물이다. 유명 식품 회사 네슬레(Nestlé)는 미국과 영국 등지에 윌리 윙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캔디와 초콜릿을 포장, 생산하였으며 이는 크게 성공을 거둬으로써 고유 명사화 되었다. 형형색색의 화려하면서도 재밌는 이미지로 소비자를 사로잡았으며 매튜 본 역시 무대를 애니메이션 같은 원색의 강렬함과 아기자기한 동심의 향연으로 연출하였다.

## 유사한 작품<sup>23)</sup>

6가지 다른 작품들은 12월 첫 주부터 차례로 방영하며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하나의 작품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챔피언의 자격으로 주요 시간대에 다시 방영하는 것이 이벤트의 요지이다. 12월은 수많은 무용단들이 「호두까기 인형」에 주력하는 시기이며 따라서 공연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TV나 인터넷 매체의 활용은 발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경쟁의 형식을 취하면서 관심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연말의 주요 이벤트로서 「호두까기 인형」은 그 가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많은 신문과 잡지의 문화비평에서 “더 이상 단지 발레로서만이 아닌...”이라는 언급과 함께 하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고전적이든 현대적이든- 다양한 방식과 매체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융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고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통해 한 발레 작품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러시아 황실발레의 산물인 「호두까기 인형」은 프티파 발레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바노프가 제작한 것으로, 고전 발

---

23) Advertisement, Battle of the Nutcrackers, *Dance Spirit* (December, 2008), 12(10), p 28. 2009년도 이벤트는 'Battle of the Nutcracker-World Game'이라는 제목 하에 American Ballet Theatre의 유명 발레리나 수잔 재피(Susan Jaffee)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월드 게임'이라는 제목처럼 세 번째 승리에 도전하는 마크 모리스 무용단, 로열 발레단, 몬테 카를로 발레단, 볼쇼이 발레단, 베자르 무용단으로 각기 다른 나라의 총 다섯 작품이 편성되었다. Ovation TV의 제작 간부인 크리스 슬라바(Kris Slava)는 재피가 이끄는 이벤트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세상 유일한 수잔 재피가 이 이벤트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쁘지 않을 수 없다. ABT에서 20년간 춤을 추어온 그녀만큼 진정한 명절 보물의 다양한 제작들에 대해 내부인의 시각에서 전해줄 적합한 사람은 없다. 「하드 넷」은 작년의 승자였지만 마크 모리스 무용단은 이번 해 아주 힘든 경쟁을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는 누가 2009년 시청자의 가슴으로 피루엣을 돌며 들어올지 알게 될 것이다.” <http://www.ovationtv.com/Events/battleofthenutcrackers/>.

레의 기본적인 형식, 즉 동화와 스펙터클한 발레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호프만의 낭만 소설은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나 이를 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완성도가 부족하여 대중과 비평가들에게 외면을 받았기에 고정적인 레퍼토리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초기 작품의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배경과 출연진의 규모는 기존의 고전 발레와 비슷했지만, 아기자기한 줄거리의 표현을 중시하는 고전 발레의 가치 기준상 ‘춤이 없는 1막, 춤 밖에 없는 2막’이라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또한 오늘날의 성공과 비교해볼 때 당시 제정 러시아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발레 속 크리스마스는 사회적으로 관객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호두까기 인형」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러시아 발레가 서구 사회로 이주하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발란신과 미국 사회와의 만남은 성공하지 못했던 한 발레를 부활시킴으로써 이후 「호두까기 인형」은 서구의 크리스마스 문화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미국의 「호두까기 인형」은 냉전시대 속 주류 중산층을 겨냥하여 ‘가족’과 ‘명절’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덧입힘으로써 초연작과 차별화 시켰으며, 어린 이와 어른, 양 쪽 모두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의 성공은 단지 뉴욕시티발레단의 명성을 드높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를 통해 미국 전역에 새로운 크리스마스 전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나아가 서구 사회 전체에 확산되는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크리스마스라는 문화적 파급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역사를 이어온 「호두까기 인형」은 고전 발레의 계승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현대적인 안무와 기발한 아이디어의 도입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재탄생 하고 있다. 이는 발레 애호가들을 위한 성공적인 고급 예술로서의 발레에서 나아가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 대중이 소비하는 예술, 다문화를 아우르는 예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극장 예술의 형태를 포함하여 TV 방영, 대중문화의 응용, 지역과 민족색의 반영 등을 통해 현재에도 새로운 버전을 창출해내고 있다. 「호두까기 인형」의 영속과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인기는 나아가 소비자(관객)의 기호와 연령대를 더욱 세분화시켜 책, DVD, 장난감, 장신구, 식문화 등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 속에서 명절을 즐기는 문화, 그리고 소비하는

문화의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모습의 「호두까기 인형」이 다양한 경로로 소비되어지고 있다. 보수적인 가족 담론이든, 대중 예술과의 혼종이든, 혹은 소수자의 정체성 표명이든 「호두까기 인형」은 개개인의 삶을 연대시키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의 장이라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명절이라는 시간과 만남으로써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며, 소비와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켰다고 본다. 문화는 ‘삶의 방식’이라는 정의에서처럼 「호두까기 인형」은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향유하는 행위의 변천을 다양하게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본 연구가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미를 논의하기위해 광범위한 시간대를 다루었던 만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혹은 새로운 지역에서 등장에는 「호두까기 인형」 문화에 대한 사례 연구 역시 계속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은미(2006). 안무가 매튜 본(Matthew Bourne)의 Parody 성향에 나타난 창조성 연구: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와 ‘호두까기 인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정(2002). 현대 발레 작품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에 관한 연구: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모리스 베자르의 ‘호두까기 인형’, 마츠 에크의 ‘지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1996). 무용에 나타난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에 관한 연구: 마크 모리스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주미(1999). 현대발레 작품에 나타난 패러디 양상에 관한 연구: 『하드 너트』와 『지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2009). 매튜 본(Matthew Bourne)의 연출 특성에 관한 연구: 댄스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astair Macaulay(2009). A ‘Nutcracker’ Lover Explains Himself, *The New York*

www.kci.go.kr

*Times* (Dec. 16).

Ann Daly(1987). The Balanchine Women: Of Hummingbirds and Channel Swimmers, *The Drama Review: A Journal of Performance Studies* 31(1), 9-21.

Brenda Dixon Gottschild(1996). *Digging the Africanist Presence in American Performance: Dance and Other Contexts*, Westport, CT: Praeger.

Catherine Gunther Kodat(2000). Dancing Through the Cold War: The Case of The Nutcracker, *Mosaic: a Journal for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f Literature* 33(3), 1-17.

Jane Desmond(ed.)(1997). *Meaning in Motion: New Cultural Studies in Dan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Jennifer Fisher(2003). *Nutcracker N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_\_\_\_\_ (2003-2004). Arabian Coffee in the Land of Sweets, *Dance Research Journal* 35(2)/36(1), 146-163.

Michel Foucault(1965).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New York: Random House.

\_\_\_\_\_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Books.

\_\_\_\_\_ (1977).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Random House.

\_\_\_\_\_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New York: Random House.

Roland John Wiley(1985). *Tchaikovsky's Ballets: Swan Lake, Sleeping Beauty, Nutcracker*, Oxford: Oxford UP.

Susan Leigh Foster(ed.)(1996). *Corporealities: Dancing Knowledge,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erry Teachout(2004). *All in the Dances: A Brief Life of George Balanchine*, Florida: Harcourt Inc.

Advertisement. "Battle of the Nutcrackers", *Dance Spirit* (December, 2008) 12(10).

<http://www.ovationtv.com/Events/battleofthenutcrackers/> (2010년 1월 4일)

[http://en.wikipedia.org/wiki/fantasia\\_\(film\)#Nutcracker\\_Suite](http://en.wikipedia.org/wiki/fantasia_(film)#Nutcracker_Suite) (2010년 1월 23일)

논문투고일	2010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5일
심사완료일		3월	22일

www.kci.go.kr



##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The Nutcracker*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Youngjae Roh

Lecturer in Department of Dance  
Dong-A Univ., Sungkyunkwan Univ.

This paper explores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a renowned classical ballet, *The Nutcracker*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s one of Russian imperial ballets, *The Nutcracker* choreographed by Lev Ivanov attempted to combine a German story with classical spectacle. The ballet was inspired by a E. T. A. Hoffmann's popular story but not successful in the early years due to its unusual structure. Compared with today's popularity during the Christmas Season, the early Russian version of *The Nutcracker* did not received great attention in the imperial period.

The development of *The Nutcracker* seemed to be caused by immigration of Russian ballet to the West. Especially the George Balanchine's version which emphasized the traditional notion of 'middle class family' and 'holiday'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new Christmas tradition as well as New York City Ballet's glory in America. *The Nutcracker* along with Christmas tradition then spread out to other Western countries. In the contemporary era, *The Nutcracker*'s cultural power signifies not only inheritance of great classical ballet but also a sort of ongoing bodily practices which embody various contemporary cultural trends and social issues. In addition, based upon broad marketing strategy, *The Nutcracker* is also considered as a symbol of holiday consumer culture today.

By a number of choreographers and dance companies in the world, *The Nutcracker* has been widely disseminated, adopting a conventional family discourse, popular culture, minority discourse and so on. As a result, whatever each version takes, it evokes a sort of community sense in which a group of people ties together.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The Nutcracker* becomes a good example to read social values in history and diverse aspects of cultural practices.

keywords: The Nutcracker(호두까기 인형), Cultural Studies(문화연구), Classical Ballet(고전 발레), Christmas Culture(크리스마스 문화), History of Ballet(발레사)

[www.kci.go.kr](http://www.kci.go.kr)